

2홈런·결승타… 끝내줬다 나지완



KIA, SK전 7-6 끝내기 승… 나지완 5안타 5타점 맹활약
6위로 도약… 5위 LG와 2게임차 추격 가을야구 가시권

“팬들에게 죄송하다”는 끝내기 주인공이었다. KIA 타이거즈가 16일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SK 와이번스와의 경기에서 연장 10회말 터진 나지완의 끝내기 안타로 7-6 승리를 거뒀다. 이날 승리로 KIA는 삼성 라이온즈와 자리를 바꾸고 6위로 올라섰다. 5위 LG 트윈스와는 두 경기 차가 됐다. 나지완이 홈런 두 개 포함한 프로 첫 5안타 경기를 하며 승부를 원점으로 돌리고 또 끝냈다. 나지완이 1-3으로 뒤지던 4회말 승부를 원점으로 돌리는 투런포를 날렸다. 최원준의 우전안타로 만들어진 1사 1루에서 나지완이 산체스의 144km짜리 커터를 공략해 중앙 담장을 넘겼다. 나지완의 시즌 20호. 이 홈런과 함께 나지완은 KBO리그 통산 38번째 3년 연속 20홈런의 주인공이 됐다. 나지완의 포효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다. 마무리 윤석민이 4-4로 맞선 9회 2사에서 등판해 아웃카운트 하나도 잡지 못하고 2실점을 하고 물러나면서 SK로 흐름이 기울었다. 하지만 선두타자로 나온 이병호가 이날 첫 안

타로 꺼져가던 불씨를 살렸다. 김선빈이 중견수 플라이로 물러났지만 나지완이 이번에는 신재웅의 체인지업을 담장 밖으로 날려버렸다. 점수는 다시 6-6. 이어 유재신과 한승택이 연속 볼넷으로 걸어 나가면서 KIA가 경기를 끝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KIA의 바람대로 베나디나의 중전 안타까지 이어졌지만 거리가 부족했다. SK 중견수 김강민의 총알 송구에 홈에 들어오던 유재신이 아웃됐고, 황윤호의 강한 타구는 투수 신재웅을 맞고 튀면서 땅볼이 되고 말았다. 결국 연장으로 돌입한 승부. 하지만 이날 경기 마지막 순간에도 나지완이 있었다. 10회초 마운드에 오른 황인준이 삼자범퇴로 이닝을 처리한 뒤 10회말 공격 기회가 찾아왔다. 선두타자 최형우가 좌익수 플라이로 물러났지만 안치홍이 좌측 안타로 출루했다. 홍재호와 김선빈의 연속 볼넷으로 1사 만루가 됐고, 나지완의 여섯 번째 타석이 돌아왔다. 6회 볼넷, 7회 내야안타까지 앞선 다섯 번째 타석에서 모두 걸어 나갔던 나지완이 이번에도 출루에 성공하며 4시

간 34분의 긴 승부에 마침표를 찍었다. 이번에는 박희수를 재물 삼았다. 나지완은 박희수의 4구째를 공략해 좌중간에 공을 떨어트리면서 끝내기의 주인공이 됐다. 지난 2013년 4월 10일 광주 두산전에 이어 오랜만에 기록된 나지완의 끝내기 안타였다. 나지완은 “마지막 타석에서 부담없이 치자는 생각으로 타석에 들어갔다. 컨디션 좋고 나쁜 것을 생각할 상황이 아니다. 선수 입장에서는 준비 잘해서 좋은 결과를 내야 한다”며 “팬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지난해 우승팀인데 5강 싸움을 하는 게 죄송하다. 언제든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하고 있어야 한다”고 담담하게 끝내기 소감을 언급했다. 한편 1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으며 승리의 발판을 놓은 황인준은 입단 4년 만에 첫 승을 기록했다. 황인준은 “휴식이 지나고 나서 밸런스가 좋지 않아서 밸런스에 신경을 많이 썼다. 오늘은 생각한 대로 경기가 된 것 같아서 기분 좋다. 결과는 생각 안 하고 있었는데 승리투수가 됐다. 팀이 이겨서 더 좋다”며 “나가기만 하면 열심히 하자는 마음이다. 팀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무표정’ 임기준 “못 하면 울상·잘하면 포커페이스래요”

덕아웃 **T** 톡톡

▲못 던지면 울상, 잘 던지면 포커페이스라고 그 래요 = 임기준은 올 시즌 꾸준하고 강렬한 피칭으로 KIA 좌완 필승조로 자리를 굳혔다. 11일 NC 전, 14일 롯데전에 이어 15·16일 연달아 SK를 상대한 임기준은 4.2이닝 2피안타 1볼넷 2탈삼진 무실점 호투로 1승 1홀드를 기록했다. 꾸준한 모습을 보인 임기준은 “페이스가 떨어질 때쯤 아시안 게임 휴식기가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아프지 않고 던지는 게 지난해와 다르다. 다른 특별한 것은 없는 것 같다”고 언급한 임기준은 “결과가 좋으니까 달라 보이는 것이다. 못 던지면 울상이라고 하고, 잘 던지면 포커페이스라고 한다”며 웃었다. ▲공은 잘 보였어요 = 최원준에게는 험난했던 15일이었다. 이날 9번 타자 겸 유격수로 선발 출장한 최원준은 3회 맞은 첫 타석에서 헛스윙 삼진으로 물러났다. 5회 무사 1루에서 들어선 두 번째 타석도 헛스윙 삼진. 0-1로 뒤진 6회 2사 만루에서 2루수 땅볼로 돌아섰다. 그리고 0-2가 된 8

회말 다시 2사 만루에서 최원준의 타석이 돌아왔다. 이번에는 빗맞은 타구가 1루수 쪽으로 공이 가면서 내야안타가 기록됐다. 행운도 따랐다. 1루수 로맥의 송구 실책이 나오면서 두 명의 주자가 들어오면서 2-2 동점이었다. KIA는 분위기를 이어 베나디나의 적시타로 4-2를 만들며 역전승을 거뒀다. 최원준은 “공이 잘 보였다. 그래서 오히려 방망이가 쉽게 나갔었다”며 “기회가 계속 왔는데 못 살렸다. 결과가 좋아서 다행이었다”고 말했다. ▲일찍 깨고 일찍 졸려요 = ‘민간인’의 생활이 아직은 어색한 ‘예비역’ 전상현이다. 전상현은 지난 11일 상무야구단에서의 군 복무를 마치고 전역했다. 올 시즌 20경기에 나와 3.06의 평균자책점으로 13승 5패를 기록하면서 퓨처스리그 다승왕에 오른 전상현은 바로 12일 KIA 유니폼을 갈아입고 1군에 등록됐다. 그리고 14일 롯데와의 원정 경기에서 복귀전을 치러 1이닝을 소화했다. 하지만 전상현은 “아직 제대했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는다. 어색하다. 아침에 일찍 눈이 떠지고 저녁에 일찍 잠이 온다”고 웃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이제 프로 주축 되고 싶어요”

애틀랜틱야구선수권 우승 전인 광주일고 김창평·정해영 챔스필드 방문

“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난 10일 일본 미야자키에서 끝난 제12회 아시아야구연맹(BFA) 아시아 청소년야구선수권대회에서 우승을 견인한 광주일고 내야수 김창평(3년), 투수 정해영(2년)이 16일 챔피언스필드를 찾았다. 이날 챔피언스필드에서는 KIA와 SK의 경기가 열렸다. SK는 내년 시즌 김창평이 뛰게 될 팀이다. 김창평은 지난 10일 열린 2019 KBO 신인드래프트에서 SK의 2차 1라운드 지명을 받으며 프로선수의 꿈을 이뤘다. 청소년선수권 대회 우승과 대회 MVP 수상, 프로 지명까지 경사가 겹친 김창평은 “가고 싶던 구단이었는데 1라운드에서 지명을 받게돼서 영광이다. 아직은 실감이 나지 않는다”며 “일단 1군에서 뛰는 게 목표다. 준비 잘해서 팀의 주전 선수로 뛸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청소년야구선수권대회 우승은 김창평에게는 잊을 수 없는 경험이 됐다. 한국은 대만과의 결승에서 10회 승부차기 접전 끝에 7-5 승리를 거두며 통산 5번째 아시아 정상에 올랐다. 스위츠 번트로 대만 수비를 흔들며 우승의 주역이 된 김창평은 타점 1위(11개), 득점 1위(11개)와 함께 대회 최우수선수(MVP)로도 선정됐다. “대한민국을 대표라는 이름을 걸고 나간 만큼 지



광주일고 김창평(왼쪽)과 정해영이 16일 KIA와 SK의 경기가 열린 챔피언스필드를 찾았다.

기 싫었다. 잘한 게 없는데 MVP를 주신 것 같다. 운이 좋았다”며 웃은 김창평은 “야구를 잘하는 선수들과 연습을 하고 경기를 하는 게 좋았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팀워크도 맞추고 재미있었다. 하지만 승부의 세계는 냉정하다. 내년에 프로에서 만나면 누구한테도 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2학년 정해영에게도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던 대회이자 우승이었다. 정해영은 “펜타 부분과 구중에 대한 것을 배우고 왔다. 연습 피칭을 할 때 공이 너무 안 좋아서 기분이 좋지 않았는데 형들이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주었다” 또 “내년에는 내가 팀을 이끌어가는 선수가 되고 싶다”고 각오를 언급했다. /김여울 기자 wool@

광주실버야구단 나이 잊은 투혼 ‘8강 세이프’

무등기 사회인야구… 정진산업스카이·파트너스·시티호텔 합류

제8회 아로마라이프배 무등기 광주·전남 사회인 야구대회 3주 차 경기가 16일 함평야구장에서 열렸다. 광일리그 정상을 노리는 16개 팀의 도전이 시작됐다. 앞서 무등리그 8강 팀이 모두 가려지면서 3주 차 경기는 광일리그 16강전으로 진행됐다. 전통의 강호 정진산업스카이가 가장 먼저 8강행을 확정했고, 만 48세 이상으로 구성된 광주실버야구단도 나이를 잊은 투혼 속에 승자가 됐다. 파트너스는 대회 사상 첫 사이클링 히트 기록과 함께 대회 첫 승을 신고했다. 시티호텔도 25득점에 성공하면서 8강에 합류했다. 정진산업스카이는 5.2이닝을 3실점 6탈삼진으로 막은 선발 정재운을 앞세워 오합지졸에 9-3 승리를 거뒀다. 4번 타자 최홍준이 3안타를 쓸어 담으면서 타선을 이끌었다. 오합지졸의 선발 최우석은 1회부터 6회까지 책임졌지만 9실점으로 완투패를 기록했다. 광주실버야구단은 광주를 대표하는 실버사회인 야구클럽의 힘을 보여주며 뉴욕야시장에 12-6 승리를 챙겼다. 1회 타석전을 벌인 두 팀은 2회 5점 썩을 주고 받으면 힘겨루기를 했다. 그리고 6-6으로 맞선 4

회 광주실버야구단이 대거 6점을 뽑아내면서 승기를 가져왔다. 톨타자 여기철이 3안타 3타점으로 승리를 불렀다. 광주레인보우를 상대한 파트너스는 대회 첫 사이클링히트 기록과 함께 8강에 진출했다. 1회부터 4점을 뽑은 파트너스는 2회 나온 엄기선의 그라운드 홈런을 더해 9-0까지 점수를 벌였다. 4회에는 김은민이 그라운드 홈런을 기록하는 등 파트너스는 폭발적인 공격력을 보여줬다. 특히 엄기선은 2루타를 시작으로 홈런, 단타 그리고 마지막 타석에서 3루타에 성공하면서 사이클링히트를 장식했다. 시티호텔은 공수에서 BLACK을 압도하면서 25-0, 4회 콜드승을 기록했다. 1회부터 점수를 만들어낸 시티호텔은 2회 3점, 3회 8점을 만들면서 일찍 승기를 잡았다. 그리고 4회에는 정준도가 함평야구장 담장을 넘기면서 승리에 화려한 마침표를 찍었다. 선발로 나온 국준은 4이닝 동안 8개의 탈삼진을 뽑아내는 등 무실점으로 경기를 마무리하며 승리투수가 됐다. 한편 광주광역시야구소프트볼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전라남도체육회가 후원한다. 아름다운 가치를 강조하는 기업 아로마라이

프(회장 이학재)와 KIA 타이거즈도 지역 사회인 야구인들의 잔치에 함께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무등기 전적(3주차·광일리그 16강전)

◇1경기 오합지졸 0 0 1 0 2 0 - 3 정진산업스카이 0 3 1 0 2 3 X - 9 ▲승리투수 : 정재운 ◇2경기(5회 시간제한 승) 뉴욕야시장 0 5 0 1 0 X - 6 광주실버야구단 0 5 1 6 0 X - 12 ▲승리투수 : 손용욱 ◇3경기(4회 콜드승) 파트너스 4 5 4 3 X - 16 광주레인보우 0 1 0 0 X - 1 ▲승리투수 : 김영복 ▲홈런 : 엄기선 : (2회 2점 그라운드 홈런·사이클링히트)·김은민 (4회 2점 그라운드 홈런·이상 파트너스) ◇4경기(4회 콜드승) 시티호텔 1 4 8 12 X - 25 BLACK 0 0 0 0 X - 0 ▲승리투수 : 국준 ▲홈런 : 정준도 (4회 2점·시티호텔)